

2020년도 지방직/서울시/교행직 국어 정답과 해설지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④	①	②	①	③	③	②	①	④	③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①	②	④	③	②	③	③	①	④	③

1. 정답: ④

뽀뽀러: 의존명사+조사 ‘더러’이다. 무엇을 추가한다는 뜻이므로 ‘무척’이란 뜻과는 다르다. ‘무척’이란 부사는 뒤에 나온 형용사 ‘부지런하다’를 수식하는 말이다.

2. 정답: ①

문제 자체에 동그라미를 하고 풀자. ‘인터넷 중독과 해결’인데 ‘성인 광고 문자 대량 발송’과는 연관성이 없다.

3. 정답: ②

본문의 밑줄에 집중해서 풀자. 상대방이 늦은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말이다. 늦어서 미안해 하는 ‘김 대리’를 배려한 것이다.

4. 정답: ①

하노라고: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했다는 뜻인 ‘노라고’

(예)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느라고: 앞 절이 뒤 절의 목적,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영희는 웃음을 참느라고 탄 데를 보았다.

철수는 어제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먼 길을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5. 정답: ③

공감각적 이미지는 본문에 없다. ‘푸르고’: 시각, 썩어 구린내: 후각은 쓰였다.

<오답풀이>

④ 어미로 ‘지요/구요’로 끝나서 구어체(실제 말하는 어투)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

6. 정답: ③

주장이면 주제 문제다. 2단락에 2째 줄 보면,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는 주제 문장이 나온다. ‘적극성’을 가장 같은 의미로 바꿔쓰기한 ‘능동적’인 ③이 답이다.

7. ②

권토중래(捲土重來): 말다 권, 흙 토, 다시 중, 오다 래: 실패했다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오다.

<오답풀이>

- ① 토사구팽: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잡아서 먹는다, 실컷 쓰고 버리는 경우
- ③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 ④ 아전인수: 제 눈에 물 대기, 즉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일을 해석하는 것 (=견강부회(牽強附會)와 같다)

8. 정답: ①

머무르다=머물다: 본말과 준말이지만, 뒤에 모음어미 ‘아,어,았,었’이 올 때는 본말인 ‘머무르다’에서 어미 활용을 한다. 자음어미가 이어질 때는 둘 다 쓴다.

머무르다	머물다
머무르+어=머물러	머물어/머물었다(×):틀린다.
머무르+었+다=머물렀다	
머무르고, 머무르니, 머무르자	머물고, 머무니, 머물자

9. 정답: ④

주장을 물으면 주제를 찾으면 된다. 2단락 처음에 역접 접속사 ‘그러나’ 뒷부분을 보자. 제일 끝부분에 ‘이것은 작가가 제한적 특징을 변형할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란 구절이 있다. 이게 주제문이다.

보기 선지를 보면 모두 ‘복제본’이란 말이 있다. 복제본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10. 정답: ③

어려운 한자어다. 이걸 버려도 되는 문제다.

- ③ 쓰레기를 ‘투기(投棄)’: 던질 투, 버릴 기: 함부로 버리다.

<오답풀이>

- ① 꿈을 버리다: 포기(拋棄): 던질 포, 버릴 기
- ② 버려지는 반려견: 유기(遺棄): 동물을 내다버리다.

④ 습관을 버리다: 근절(根絶)하다: 뿌리째 근본적으로 고치다.

11. 정답: ①

꼭혀지고: 이중피동이다. 그러나 고치자면 앞의 문장과 맞춰
'꼭히고'로 고쳐야 한다.

<참고> 꼽다: 타동사로 목적어가 앞에 와야 한다.

중요한 인물을 꼽다. 숫자를 손가락으로 꼽다.

12. 정답: ②

애매한 소식의 마무리 기사글로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다'는 맞지 않다.
'귀추가 주목됩니다'이나 '좀 더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로 써야 한다.

13. 정답: ④

종이다. 고려 때 한문으로 쓴 가전체 작품으로 <저생전>이다.

'저(楮)'는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를 말한다. 이 작품을 몰라도 겁을 내지 말고
끝부분에서 답을 찾자. '문사(文士): 글 짓는 선비와 더불어 놀다'라는 구절과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다' 먹으로 붓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
다. 여기서는 '문사'라는 데서 답을 내면 좋겠다.

<참고>

성은 저이요, 이름은 백(희다)이요, 자(또 다른 이름)는 무구(때가 묻지 않음)이
다. 성질이 정결(깨끗해서) 무인(칼 쓰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놀다.
모학사(붓 모: 붓을 가리킨다)가 그 벗이다.

14. 정답: ③

굿거리장단: 글의 제일 끝에만 나온다. 말뚝이와 양반이 같이 춤을 추는 대목
에서 나온다.

15. 정답: ②

의존명사 '중, 시, 내, 측'은 앞말과 띄운다. 예외도 있으나 기본이 더 중요하
다. 기출에도 나왔던 것이다.

(예) 범위 내. 건물 내. 일주일 내. 기간 내. 시간 내

<오답풀이>

① 해도 해도: 동사+동사로 합성어가 아니다. 합성어가 되는 것은 아래 경
우다. (예) 하고하다. 하고 많다. 푸르디푸르다. 곱디곱다

③ 대접하는 데나: 관형어 ‘대접하는’의 수식을 받는 ‘데’는 띄운다. 이때는 ‘경우’란 의미다.

데: 의존명사로 띄운다	는데, ㄴ데어미로 붙인다
용언의 관형형 아래 쓰인다	어간 뒤에 붙인다
봉투를 붙이는 데 쓰는 풀 졸업장을 따는 데만 관심이 있어 내가 배운 데를 복습해 오늘 가는 데가 어디야?	비가 오는데 우산은 왜 안 가져가니? 내 고향이 저기인데 인심 좋고 경치도 좋아

④ 정공법밖에~없다: 뒤에 ‘없다/아니다’ 부정서술어가 이어지면 ‘밖에’는 조사로 앞말에 붙인다.

밖에: 조사로 붙임	밖: 바깥, ~외의 뜻으로 명사로 띄운다.
내가 좋아하는 건 너밖에 없어. 국어밖에 잘하는 게 없어.	대문 밖에 누가 있니? 국어 밖에도 잘하는 게 많아. 너 밖에도 할 사람이 있어.

16. 정답: ③

<중국인 거리>란 소설이다. 독해 문제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소설은 보기 선지부터 읽고 중요 단어에 표시를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간다.

③ 끝에서 3번째 단락에 ‘낮은 철조망을 뛰어넘었다’란 부분이 있다.

17. 정답: ③

비유가 들어간 문장 바로 뒤에 해설이 나온다. ③이 맞다.

<오답풀이>

① 바이러스

② 과민반응한 면역계

④ 숙주의 죽음 즉 따라서 바이러스도 죽게 된다.

18. 정답: ①

보기에서 2개를 빼는 것부터 하자. 큰 경제성장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 이건 본문에서 할 수 있다. 일단 화제제기부터 1단락으로 와야 한다. ③④를 빼고 시작하자. ㉠에서 평균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이 화제다. 그 뒤는 평균 소득이 높아진 배경 해설이 나오는 ㉡이 맞다.

19. 정답: ④

이건 부합형 문제지만,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찾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

다. 보기 ①과 ②는 일단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쓰기한 것이다. 둘 다 맞다. ③④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본문의 주제는 앞부분에 있다. 첫째 줄부터 다섯 째 줄까지 읽으면 이 글 주장이 나온다. ③도 확증 편향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④만 새로운 정보와 심리적 불안을 연결하고 있는데 본문에 ‘심리적 불안’은 나오지 않는다.

20. 정답: ③

문학을 비문학으로 푸는 문제다. 고주몽 설화다.

- ㉠ 유화
- ㉡ 금와왕
- ㉢ 주몽
- ㉣ 활을 잘 쏘는 모든 사람
- ㉤ 금와왕
- ㉥ 주몽